

것이 아마 地方의 輿論일 것이다. 實은 既爲 賢은 지음에 骨湯한 그릇만 좋던 먹고 昇格만 식히고 보면 學生 起送에 每年 大骨湯 그릇을 버릴 수 있스며 또는 地方 情況에 未熟한 나으르 씨 或은 錯見 일지는 爲으 깃스나 全 鮮 寺刹의 六十萬町步 是는 巨大한 森林中으로 容易 할 것이 라고 믿는다. 아모리 哲學博士의 머리처럼 必 거진 山이라 할지라도 一町步에 平均 一圓의 收入은 어 들 수 있슬 것이 라 한다. 馮구나 每年이 아니고 一回이다. 一圓이 過하다면 七十錢式이라 도 四十萬圓의 增資는 그 다지 어렵지 아니 할 것이 라고 믿는 바이니 우리는 잊대

에 奮發하야 一切 唯心造의 原理를 조금만 利用하자는 것 이다. 多言을 不要하고 一말한 것이 아니 된다. 아 니 된다는 것보다 誠意가 入다는 것이 誠意가 入는 教育 機關은 차라리 그 만 두자는 것이 徑截門일 것이다. 너무 나 過言가 入나 不得已한 事實下에서 自然吐 出된 것이 다. 그러한 各學校及 敎務院當局者 諸氏는 勿論이 어니와 各地方當局者 僉位며 老德青年의 一般 敎徒는 從來의 誠 意를 다시 한번 翻覆하사 更一次 深重하신 一考를 下하시 기를 企望하야 마나이다.

### 優曇鉢羅華의 再現을 祝하고

東京에서 崔 英 煥

있던 佛敎學徒가 그의 洗鍊한 말로서 佛敎를 指示 하여 가로대 「向上門에서 잇는 佛敎는 學術이며 哲學 이다. 그리고 向下門에서는 佛敎가 技巧은 藝術이 다」 하였습이다. 學術이며 哲學이고 보니 人間 으로 可能한 方法으로서 菩提를 自證하게 되며 造作 是는 藝術이고 보니 眾生을 巧으는 것이 佛敎人文史

가 如實히 말하고 잊지 안습는가?

佛敎는 그 有史以後로 여러 地方에서 民間 民衆을 敎 化하여 왔스나 決코 盲目的으로 信仰하라고 說거리로 써서 信仰을 팔나고 하지 않았습은 여러 분이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습지요! 그렇으므로 그들 佛敎傳道師를 온 諸方에서 愚迷한 民族의 是는 글을 가트칩스며 是

한 말을 가르치 理法을 推知하는데 가장 適合하게 熱心 으로 努力하여 왔스며 그 後에 세움을 차리어서 結을 알 게 될 때에는 文明이 가져온 人文의 藝術의 蘊蓄을 가 저다 주었스며 實業百般에 對한 學問을 가르치서 그 民族으로 하여금 各自가 自覺잇는 種族됨을 要望하지 안나 하여 습는가?

釋尊의 生地인 印度에서는 佛敎가 時間의 觀念과 記 述의 學問이 되었섯스며 한 번 慈嶺을 넘어 支那에 이르 러서는 唐宋以後의 一切學의 源泉으로서 異彩를 發輝 하여 왔스며 本邦에 이르러서는 다시 佛敎黃金時代 를 形成하야 靑丘鶴林에 다 實現하고 그 巧妙한 藝術 로서 다시 極東에 다 宣布하여 日本文化를 養成하여 내었습은 다시 贅語를 가자 할 것이 업사오리 다만은 印度의 佛敎는 暴惡한 異敎徒의 迫害와 敎團内部의 腐 敗로서 數世紀가 못하야 오죽 佛蹟을 차저 낼 뿐이 닐 니다. 그리고 支那에서는 三武一宗의 排佛毀釋이라 는 人文史에 보기 실은 史料를 보게 되나 그는 참으로 열마 동안 安ん 時間에서 反佛運動이 잇섯습에 不過하 코잇습이다. 本邦佛敎는 三國時代佛敎輸入한 爾來, 新羅時代에서는 佛陀의 正風을 傳하러는 慈藏이 잇섯

스며 이와 正反對로 佛陀의 正意를 傳承하러는 元曉, 浮雪等의 輩出을 보게 되었스며 高麗時代에서는 敎 學을 完成케 하에는 佛敎의 光壁이 될 만한 結集이 唯一의 信條로서 義天等이 出世하여 世界無比의 刊藏을 成就 하고 學問으로는 西天의 那爛陀精舍와 唐宋의 台 密禪等의 諸山의 學風을 凌駕하고 實답계 實社會에 實 現하여 온 그 眞구는 甚深刻化한 佛敎를 本邦에서 根 絶을 한 것이 李朝數百年來에 行政當局者들의 根 機구는 連續的 計畫政策의 한 아이 엿습은 世界佛敎文 化史를 보는 中에 그 類를 發見할 수 업는 迫害와 虐待 와 恥辱을 疑心 업시 加하여 왔스며 文化가 주는 一切에 對하야 暗愚하게 도 背恩의 行動을 公然히 遂行함에 不 拘하고 우리들 先師들은 萬々내 精進하여 왔스며 甘 受하여 왔습니다. 可憐한 그들이 들 先師의 是는 社會一 般의 人格과 生命財產이라는 것도 全然히 無視하여 저 왔스나 그러나 그들이 들은 宗敎의 最後의 勝利를 夢想 하고 一切의 迫害에 對하야 法悅로서 對하며 難行苦 行을 繼續하면서 社會衆生을 敎化하여 왔습니다. 맞치 佛陀가 修行期에 잇슬 때와 같치!



합니다。아모록 특産殿과産母의 充全을 부었도다。  
企望하며 同時에學園諸友의 健全한信念에서 濫  
溢하는公明正大한學의態도와 又日新의聖典體驗을  
바래는바을시다。그곳에서우리는古佛古祖의面影  
을對面하며 한層더나아가그이들未到之處를公案  
에 밝키認識하는 自在한境界에 들수가잇스리라고  
믿습이다。이에우리들이 幾千年前過去의眞理를通  
하여서一數萬年の未來에다 一한層큰理法을써루  
와利他的實證하리니이것이우리들後輩들의큰義實

# 거 정 에 對 하 야

李 在 元

世上에누가幸福을바라지아니하며누가安樂을바라  
지아니하랴! 그러나世上사람은幸福스릴지못하고安  
樂하지못하니 이것이일은바人生의苦海일것이다。  
다시말하면거정잇는生活을하기때문에幸福스릴지못  
하고거정스려운살림을하기때문에安樂을얻지못한다  
그러니어느누가거정잇기를조하하며거정입기를바라  
지하니하랴! 그러나사람들은거정을免하러하여도免

할수없고아니하랴하여도아니할수없스니 이것이거  
정이아니고부엇이라!  
大抵거정입는곧이어대잇스며거정아니하는사람이  
누가잇스랴? 果然한군에도거정입는곧은업스며한사  
람도거정입는사람은업술것이다!  
世界에서有名한富者가米國에石油大王라벨나라한  
다그사람은九億圓의巨財를가지고도恒時거정을免하

지못한것은消化不良이라한다그사람은날하되한때  
의밤을살피을수있다면全財産하고바꾸어도조겠다고  
거정을한다고! 그뿐이라우리가보는가장장한체하는  
財産家들은좀더견어드리지못하여서애를쓰며좀더貧  
弱한분네들을부러먹지못하여서애를쓰며거정이다。  
現實社會가가르친다는것도事實이거니와 貌(顏)끝  
하고거정하는財産家들의頭腦를解釋하여보면果然人  
生은苦海라할것이다。

伊太利못소리니는暗殺을念慮하여外出을自由로못  
한다고한다。軍隊로包圍하고天地를踏破한들그의계  
거정은오죽하리오!

그런즉거정입는사람이누가잇스리오? 富豪家도거  
정이고가난사람도거정이다。支配를하는사람도거  
정이요받는사람도거정이다。南方에는旱災로거정이  
고北方에는水災로거정이다。말하자면부엇부엇할것  
업시모두가거정이다。公事나私事나農夫나선비(士)  
나 學生이나先生이나 宗敎家나政治家나 強者나  
弱者나모우다! 거정이다。거정의루성이다。

그러면사람은거정을아니하고는사라가지못할것인  
가반듯이거정을해야될것인가아니해도조울것인가가  
問題다。생각하자전대거정만홍사람처럼더! 不幸한사

람은업고거정하는것처럼더! 쓸데업는心的作用은업  
술것이다。

敎主釋迦如來가말씀하시기를現時그대로가極樂이  
고現時그대로가地獄이라하셨다。그런즉거정입는사  
람은極樂生活을하는것이오 거정잇는사람은地獄사  
리를한다는意味잇스리라斷言한다。

사람은웨거정을하는가? 何地獄사리를하는가의大  
問題는且置하고普通으로보아서그는修養이不足이라  
는것보다는信念이不足한까닭이라고생각한다。무슨  
事業을勿論하고徹底한信念(自己가올라고믿는)下  
에서우준한注意만것는다면成功못할것은업스리라  
민는다。아메리카大陸을發見한킬립버스가거정으로  
成功하였든가信念으로成功하였든가하면名題할必要  
도업거나와徹底한信念이였다。

거정해서무슨必要가잇겠느냐! 하던할수독弱點만  
보일것이다。할일이원청간크고만약하던거정될것은  
事實이거니와무서운現時代! 날카로운이時代로서는  
거정으로서成功되여질可望이업는것이다。어린兒孩  
가어머님을싸라가가다귀스려지면厭症이나서우는  
法이다。그러면어머님은絶對의愛를가지고가든길은  
들어서어린兒를慰安하고어린兒의所願을成功시켜준